LÉVY GORVY WITH RUMBLER

레비고비, 취리히 아트 위켄드 (ZÜRICH ART WEEKEND) 기간
레비고비 럼블러 (LÉVY GORVY WITH RUMBLER) 개관전 개최

<물질성의 실험>展
테리 애드킨스, 소니아 고메스, 센가 넨구디, 캐롤 라마

Experimenting with Materiality
Terry Adkins, Sonia Gomes, Senga Nengudi, Carol Rama

2019 년 6 월 8 일 - 8 월 30 일

레비고비 럼블러
Kirchgasse 50, 8001 Zürich

오프닝 리셉션: 6 월 7 일 금요일, 6-9PM

테리 애드킨스 <콜 Call> 1987. 황동, 철, 나무, 석고. 18 x 121 x 18 cm © 테리 애드킨스. 테리 애드킨스 재단 제공. 사진: Tom Powel Imaging.

취리히—테리 애드킨스는 우연히 발견된 재료를 재활용하는 자신의 작업 방식에 대해 오브제들의 전략적 배치를 통해 숨겨진 역사적, 은유적 의미를 드러내는 과정으로서 이를 "잠재적 폭로(potential disclosure)"라고 표현한 바 있다. 6 월 8 일 취리히 아트 위켄드 기간 중 개막하는 <물질성의 실험>은 이 같은 재맥락화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와 맥락으로 작업하면서도 물질성에 대한 공통된 접근법과 실험정신을 공유하는 테리 애드킨스와 소니아 고메스, 센가 넨구디, 캐롤 라마의 작품을 소개한다. 참여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적 오브제를 작품의 주요 재료로 활용하면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인종과 젠더, 산업 등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는 역사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다양한 아상블라주 기법을 실험하는 이들의 작업은 유심론(唯心論 , spiritualism) 에 근간을 두며 작품의 평범한 재료들을 초월적인 하나의 완전체로 재탄생 시킨다. 레비고비 럼블러의 개관전 <물질성의 실험> 은 참여 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소개하며 이들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예술정신을 기념한다.

<물실성의 실험> 출품작은 대부분이 추상적인 반면 일부 작품은 유기적인 형태의 바이오모피즘(biomorphism)과 퍼포먼스 형식을 취한다. 황동, 철, 나무, 석고 등의 재료로 제작된 테리 애드킨스의 작품 <콜 Call>(1987)은 서아프리카의 전통 발현악기인 코라(kora)와 형태가 유사하다. 이 작품은 재즈 음악가로도 유명했던 애드킨스가 취리히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체류하던 중 제작한 그의 주요작 중 하나로, 이 시기에 작가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운드 퍼포먼스 컬렉티브인 '론 울프 리사이틀 그룹(Lone Wolf Recital Corps)'을 창립하기도 했다. 센가 넨구디는 1960 년대 후반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용을 전공하던 중 퍼포먼스 예술을 접하면서 당시 정치 참여적 작업으로 주목받던 흑인 예술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이며 개념주의적인 작업을 이어가던 넨구디는 1978 년 <고가도로를 위한 의례 Ceremony for Freeway

Fets>(1978)를 처음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사진들은 고속 고가도로의 기둥을 나일론 스타킹으로 묶고, 감싸고, 둘러싼 설치작품이자 작가의 첫 공공미술 작업을 기념하여 함께 진행된 퍼포먼스를 기록한 이미지들이다.

소니아 고메스 <무제> (펜던트 시리즈 Pendentes series) 2018. 천과 레이스 조각 스티칭, 묶음. 274 x 30 x 30 cm © 소니아 고메스. Mendes Wood DM São Paulo, Brussels, New York 제공

고향인 브라질의 의상과 직물 디자인, 패치워크 등을 재사용하여 조각을 제작하는 소니아 고메스의 작업에서 역시 '묶기'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발견된 재료들을 뒤틀고, 펼치고, 바느질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는 고메스의 작품들은 젠더와 사회계층, 식민 지배 등 투쟁의 역사를 다룬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인 <무제 Untitled>(2018)는 작가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 <펜던트 Pendentes> 시리즈의 일부로, 아프로브라질 전통의 민속 의례, 브라질 직물산업의 경제적 유산은 물론 작가 본인의 빈곤했던 유년시절을 동시에 상기시키며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들의 고난을 다양한 재료와 독특한 매달린 형태로 표현한다. 사회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캐롤 라마의 폭넓은 작품세계 역시 사회적 관습을 거부한다. 비닐, 금속, 고무로 제작된 포스트 미니멀리즘 아상블라주 작품인 라마의 <버남의 예언 Presagi di Birnam>(1994)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Macbeth>에 등장하는 마녀의 예언을 배경으로 삼는다.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된 여성 등장인물을 언급하며 작품은 낡은 철재와 남근적 형태의 고무관, 자전거 타이어를 단순하게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배치해 여성의 강인함을 표현한다.

각자의 문화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일상적 오브제들을 작품의 재료로 삼아 참여작가 애드킨스, 고메스, 넨구디, 라마는 발견된 재료들로 재탄생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정치적인 격변의 시기를 작품을 통해 조명하면서 이번 전시의 모든 작품에는 반항적인 예술정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또한 작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탐색하는 반면 궁극적으로는 모두 개인적, 집단적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형태적 혁신을 이루었다. 때로는 폭력적이면서 때로는 화합적인 시선을 담은 전시의 작품들은 다채롭고 무한하게 열린 내러티브의 파편들로써 작품의 재료와 정신을 하나로 통합시킨다.

레비고비 (Lévy Gorvy) 소개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 뉴욕 매디슨가 909 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를 통해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춘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비고비 뉴욕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레비고비 홍콩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 2613 9568
www.levygorvy.com | @levygorvy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Lévy Gorvy, marta@levygorvy.com
Sam Talbot, sam@sam-talbot.com